

I. 통상현안정보

■ 베트남, WTO 가입 당초보다 지연될 듯

- WTO 가입지연으로 베트남 섬유산업에 리스크 커져

- 2005년부터 WTO 회원국간 쿼타폐지 시행이 임박한 반면, 최근 베트남의 2005년 WTO 가입이 지연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베트남에 투자진출한 우리 섬유 봉제기업들의 對美 섬유 쿼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최근 호치민에서 개최된 투자세미나에서 컨설팅회사인 맥킨지(Baker & McKenzie)사의 Fred Burke씨가 베트남이 2005년까지 WTO에 가입하는 것은 단지 목표일 뿐이며 2006년 중반 또는 후반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밝혔음. 이에 따라 베트남의 WTO 가입시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베트남 경제전문가로부터 나온 최근 전망중 가장 비관적인 전망이어서 주목되고 있음.
- 반면 EU측 WTO 가입 주협상자인 Raffaele Mauro씨는 2005년말이면 가입이 가능할 것이라는 다소 낙관적 전망을 내놓았으며, 이에 대해 베트남 정부에서는 2005년중 늦어도 2006년까지는 가입이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함.
- 그러나 베트남이 최근 WTO 가입을 위한 노력을 보이고는 있으나 WTO가입을 위한 양자협정이 시작단계에 있을 뿐 아니라 베트남 측이 회원국들에게 WTO 규범 준수에 대한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어 내년까지 WTO 가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음. 베트남의 WTO 가입 추진경과는 다음과 같음.

< 베트남의 WTO 가입 추진경과 >

일 시	내 용
1995. 1	WTO 가입신청 및 베트남 가입작업반 설치
1996. 9	대외무역제도에 대한 메모랜덤 제출
1998. 7	제1차 가입작업반 회의
2000. 11	제4차 가입작업반 회의
2002. 1	상품 및 서비스 최초 양허안 제출
2002. 4	제5차 가입작업반 회의 및 제1차 한베양자협약
2004. 6	제8차 가입작업반 회의

- 참고로 베트남은 1995년 WTO 가입신청을 한 이후 2004. 6월까지 8차에 걸친 WTO 가입 작업반 회의를 가졌으며, 이 회의에서는 베트남이 지난 2002년 제출한 상품 및 서비스 양허안에 대한 시장개방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져 왔음.
- 주요국과의 양자협상은 베트남의 상품 및 서비스 최초 양허안이 제출된 이후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는데 현재 베트남의 양자협상 대상국은 우리나라, 미국, EU 등 10여개 회원국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한편 현재 우리 투자진출기업의 직접적 관심사는 섬유봉제분야임. 미-베 무역평의회 (US-VN trade Council) Virginia Foote 회장은 베트남의 WTO 가입이 빠르면 빠를수록 쿼타폐지의 이익을 많이 누릴 것이라고 정부에 대해 WTO 가입을 서두를 것을 조언했음. Foote씨는 베트남이 내년에 가입하지 못하면 내년부터 쿼타가 없어지는 중국과 경쟁이 어려울 것이며 이미 내년도 수출물량 중 취소되는 오더가 나오고 있어 하반기부터는 베트남의 의류수출이 감소될 것이라고 전망했음.
- 이와 관련 베트남 계획투자부(MPI)의 Pham Si Chung 부국장도 베트남의 제2의 수출품목인 섬유의류의 올 상반기 전년동기 대비 8. 5% 증가한 20억 달러어치를 수출하였으며 대부분 미국으로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하반기부터 수출 증가세가 감소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함.
- 섬유봉제업체들의 쿼타 이슈 외에도 베트남의 WTO 가입은 한-베 양국간 교역규모(수출 25.6억달러, 수입 5.1억달러)를 감안할 때 상당히 중요한 사안으로 우리나라와는 상품 및 서비스 분야에서 각각 3회 양자협상을 개최하였는데 베 측에 비즈니스, 통신, 건설, 유통, 교육, 금융, 관광, 운송 등 분야에서 제한을 완화하거나 추가 개방할 것을 요구한 상태임.

(문의처 : 하노이무역관 정원준 waynech@kotra.or.kr)